조용병 "여성인재 육성 확대"… 신한 쉬어로즈 '출동'

신한금융그룹

그룹 내 여성 본부장·최상위직급 부서장 상하위 직급간 코칭 등 '멘토링 프로그램'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도 강화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그룹 내 여성 본부장과 최상위 직급 여성 부서장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 출범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용병 회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과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첫발을 뗐다.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를 출범해 여성인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한다는 것.

◆ '여성 롤모델 필요'…신한 쉬어로즈

신한금융지주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그룹 내 여성 본부장과 최상위직급 여성 부서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 출범식을 가졌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신설되는 그룹 차원의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는 여성을 뜻하는 'She(쉬)'와 영웅을 뜻하는 '히어로(Hero)'의 합성어로 신한의 우수 여성인재를 그룹 내 여성인력의 롤모델이자 여성영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신한금융의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추진 과제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 대표적인 여성 코칭 전문가인 국민대 경영학과 고현숙 교수를 비롯해 외부 여성리더 4명의 멘토로 꾸려진다. 이 멘토들은 그룹의 여성 리더들에게 리더십, 조직 운영, 네트워크 확장과 관련된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게 된다. 지주회사에선 여성 부서장 2명이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 참여한다.

'신한 쉬어로즈' 대상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의 여성 본부장 및 최상위 직급의 여성 부서장들이다. 이들은 과정이 종료되면 그룹의 여성인력의 롤모델로서 후배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내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그룹 내 여성 본부장과 최상위 직급 여성 부서장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 출범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용병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은 이를 통해 그룹 내 여성 상·하위 직급간 코칭과 멘토링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 그룹의 여성인재 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그룹 내 여성 인재들이 동경심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롤모델이 돼달라"고 주문하고 "사명감을 갖고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조용병 "여성인재 육성 위한 로드맵 수립"

조용병 회장은 신한 쉬어로즈 뿐만 아니라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VUCA(뷰카·변동성 크고 불확실한)시대에 발맞춰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의력과 유연성, 감성과 소통 능력이 풍부한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연초 진행된 신한경영포럼에서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 선포와 함께 '여성 인재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진 조직개편에서 '신한문화리더십센터'를 확대하고 '여성인재 육성'을 센터의 주요 역할로 명시해 우수한 여성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내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는 지주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2명의 여성 부서장이 탄생했다. 이후 2개월여간 지주회사 주관으로 여성 인재 육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룹 TF(태스크포스팀)가 운영돼 여성이 조직에서 성장하는데 겪게되는 장애요소 등을 분석했다.

여성 인재 육성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조직 내 여성 롤모델의 부재 ▲여성 리더의 네트워킹 및 리더십 발휘 기회 부족 ▲여직원의 특정업무 배치 어려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지적됐다.

이에 TFT는 직원 인터뷰와 설문조사 및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등을 참고해 ▲다양성에 기반한 조직풍토 조성 ▲단계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인사제도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등 장·장기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단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여성 리더 육성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여성인력의 경력개발 지원과 함께 지난해 금융그룹 최초로 시행한 그룹 공동 유연근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퇴직 후 보험료 부담… 알뜰관리 비법은?

금감원 Q&A

Q:최근 정년퇴직을 했더니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가입해 놓은 다양한 보험 계약을 무작정 해지하기엔 더 이상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게 걱정됩니다.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A:경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면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자가 건강하다면 '건강체 할인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제때 통지받고 싶다면 주소지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를 완료한 후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채신화 기자

NH농협은행 'NH스마트고지서'

50만 돌파 경품 이벤트

NH농협은행은 NH스마트고지서 50만 회원을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NH스마트고지서는 각종 청구서나 안내장을 스마트폰으로 자동알림 받고, 즉시 납부할 수도 있는 앱 서비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년 만에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앱 개발과 간편한 가입절차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3주간 실시한다. 대상자는 올해 NH스마트고지서를 가입하고, 아파트관리비 또는 NH농협생명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다. NH스마트고지서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NH농협금융지주, 中·동남아 보험시장 진출 본격화

생·손보사 신설, 조인트벤처 등 글로벌사업 창출

중국서 공소그룹 외국주주로 참여 미얀마 최초 진출로 시장선점도

NH농협금융지주가 중국과 동남아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NH농협금융은 11일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과 함께 그룹 차원에서 은행, 증권 등이 진출한 시장에 보험이 동반 진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복합금융 기반의 글로벌사업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은 현재 해외점포가 전무한 상황이다. 2012년 농협공제에서 분리돼 보험시장에 진입한 보험 후발주자로서 그 간 보험시장 연착륙과 경영안정화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여력이 없었다.

NH농협금융은 세계 2위 보험시장이자 최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진출에 생손보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은 농협금융의 중국내 전략적 파트너인 공소그룹(中國供銷集團有限公司)의 보험사 설립에 외국 주주로 각각 참여할 계획이다.

공소그룹은 늦어도 내년까지 자본금 15억위안 규모의 손해보험사를 신설할 예정이다. 농협손보는 중국 보험법규상 허용기준인 20% 이내에서 주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진영 기자

또 공소그룹은 손해보험업 진출 후 생명보험업에도 진출한다. 이에 농협생명은 단기적으로 중국 내 사무소 설치, 중기적으로는 공소그룹 생보사 주주참여 등의 방법으로 중국시장 진출방향을 고려중에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농협손보가 베트남 대형 국유은행 산하 손해보험사와 조인트벤처(JV)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월 23일 김용환 회장과 베트남 최대은행이 아그리뱅크(Agri Bank) 회장과의 면담시 보험부문 제휴에 양 회장의 뜻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아그리뱅크 산하 손해보험사와 JV를 포함한 다각적 사업협력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제2의 베트남이라 불리는 미얀마에는 국내 보험회사 최초의 진출로 시장선점에 나선다. 지난 1월 26일 미얀마 HTOO 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를 위해 4월초에 HTOO그룹 회장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양 그룹은 보험부문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은 "중국 및 동남아의 농협금융 사업파트너는 농협보험이 가진 농업보험 관련 경험과 선진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농협보험은 현지 파트너가 가진 대규모 캡티브 시장과 폭 넓은 채널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